

한국어와 영어의 억양

이 호 영 (부산수산대)

1. 머리말

지금까지 영어의 몇몇 방언들의 억양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런대로 진행되어 왔으나 (Cruttenden 1986, Chapter 5 참조), 서로 다른 언어의 억양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는 매우 미진했다. 그 이유는 둘 이상의 언어의 억양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의 억양체계를 비교하여 억양의 체계와 의미,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서로 다른 언어의 억양을 비교분석하는 억양비교론의 한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체계를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 한국어와 영어 억양의 체계와 의미, 그리고 사용법 등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2. 영어의 억양체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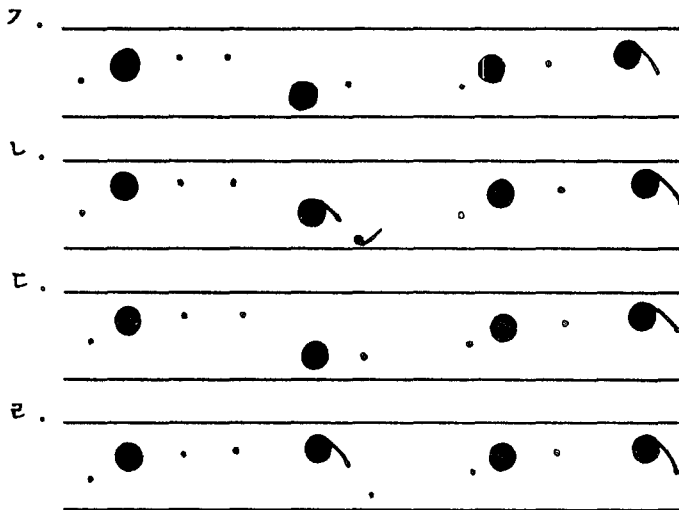
영어에서 하나의 완결된 억양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단위인 동시에 의미 및 정보 단위인 문장에 얹힌다. 따라서 억양연구의 기본단위는 문장에 얹히는 억양형태 (intonation pattern)인 **문장억양 (sentence intonation)**이 된다.

문장에 얹힐 수 있는 억양형태의 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문장억양의 수도 무한하며, 따라서 문장억양을 더 이상 조깅 수 없는 억양단위로 보면 억양의 체계와 의미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장억양보다 더 작은 억양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문장보다 더 작은 억양단위를 **말마디억양 (tune)**이라 하는데, 말마디억양은 **말마디 (intonation group)**에 얹히는 억양형태를 말한다. 말마디는 문장보다는 작은 문법단위인 동시에 의미 및 정보단위이다.

하나의 문장억양은 종종 둘 이상의 말마디억양으로 구성되는데, 문장억양을 이루는 말마디억양들 사이에는 억양 흐름의 연결성이 존재한다.

1) 영어의 억양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O'Connor and Arnold (1973), Cruttenden (1986), Couper-Kuhlen (1986) 참고.

(1) He ran to the station / and caught the t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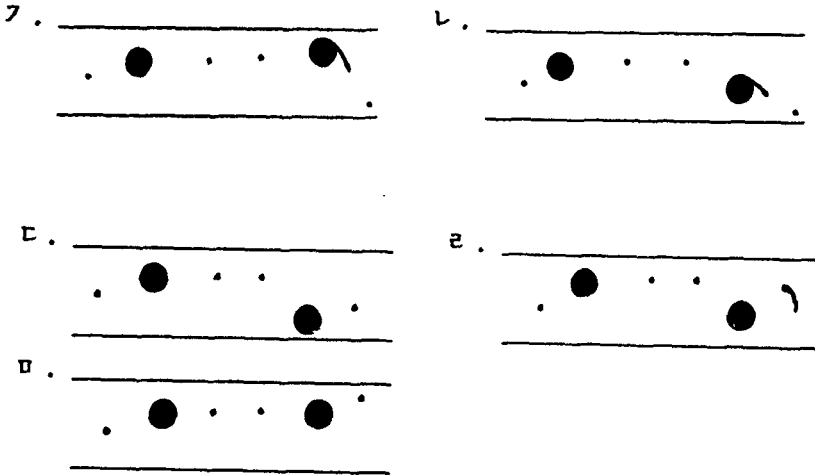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의 문장이 두 개의 말마디로 발화될 때 첫번째 말마디억양의 끝부분에는 (1ㄱ-ㄷ)에서와 같이 ‘낮오름조’나 ‘내리오름조’, 또는 ‘가운데수평조’가 없이기 때문에 첫번째 말마디억양과 두번째 말마디억양이 부드럽게 연결된다. 반면에 (1ㄴ)에서와 같이 첫번째 말마디 끝부분에 ‘높내림조’가 없으면 첫번째와 두번째 말마디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첫번째 말마디를 발화한 후 두번째 말마디가 새로 생각나서 발화한 것처럼 들린다.

문장억양을 말마디억양으로 쪼개어 분석하면 우리는 한정된 수의 말마디억양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말마디억양을 더 이상 쪼갤수 없는 억양 단위로 보고 억양을 분석하는 억양연구의 방법론을 ‘말마디억양 중심의 억양연구 (tune based intonational analysis)’라 한다.²⁾

말마디억양 중심의 억양연구의 가장 큰 단점은 말마디억양이 전달하는 억양 의미의 대부분이 말마디억양의 끝부분에 의해 전달된다는 매우 중요한 언어학적인 일반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Jones (1960)와 Armstrong and Ward (1931)은 말마디억양 중심의 억양연구의 대표적인 저서들이다.

(2) You might win a fortune.



위의 예들 중에서 (2ㄱ)은 ‘진지한, 생기있는’ 감정을 전달하고, (2ㄴ)은 ‘냉정한, 심각한’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2ㄷ)은 ‘달래는, 안심시키는’ 태도를 전달하고, (2ㄹ)은 ‘놀란, 감명받은’ 태도를 전달한다. (2ㄷ)은 서술문이 아니라 되물음 의문문 (echo question)으로 들린다. 이와 같이 위의 다섯 발화체는 각기 다른 억양 의미를 전달하는데, 각 발화체가 전달하는 억양 의미의 차이는 ‘fortune’에 얹히는 억양 형태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마디 억양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억양 형태를 말마디 억양보다 작은 억양 단위인 음조 (tone)로서 설정하고 말마디 억양을 음조로 쪼개어 분석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었는데, 이 방법론을 ‘음조 중심의 억양 연구 (tone based intonational analysis)’라 부른다.³⁾

영어에서 말마디 억양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음조를 핵억양 (nuclear tone)이라 하고 핵억양에 앞서는 음조를 머리억양 (head)이라 하며, 머리억양에 앞서는 음조를 앞머리억양 (pre-head)이라 한다. 핵억양은 말마디의 마지막 악센트 음절에서부터 말마디의 끝음절에까지 없히고, 머리억양은 첫번째 악센트 음절에서부터 마지막 악센트 음절의 앞음절에까지 없힌다. 그리고 앞머리억양은 첫 악센트 음절에 앞서는 음절(들)에 없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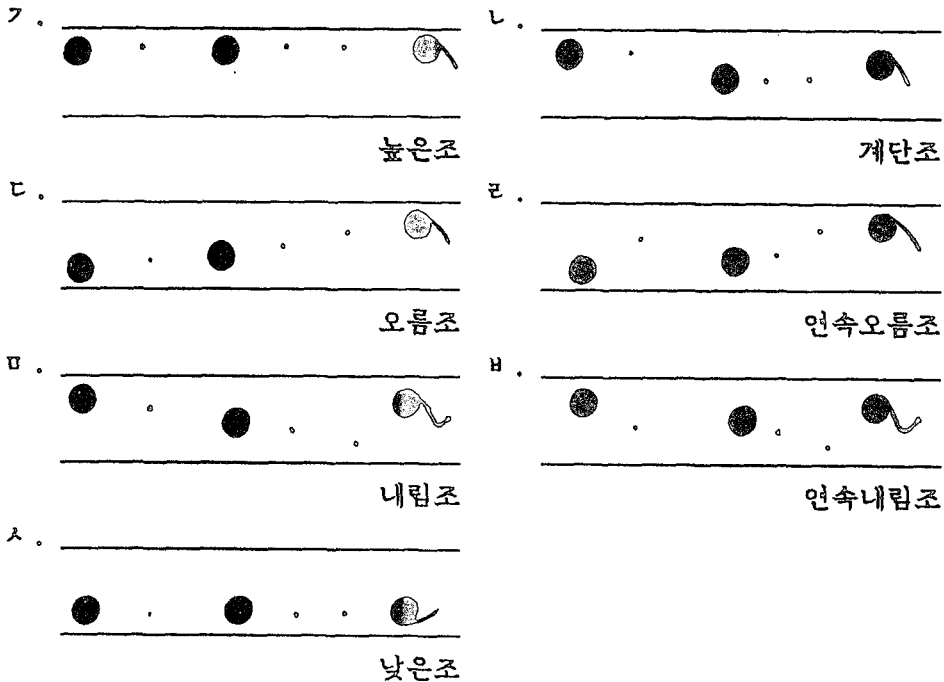
핵억양은 필수적인 억양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마디 억양에는 반드시 하나의 핵억양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말마디로 발화될 때 말마디 경계는 핵억양이 끝나는 점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에 머리억양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억

3) Palmer (1922), Kingdon (1958), Schubiger (1958), O'Connor and Arnold (1973) 등 참고.

양단위가 아니어서 말마디가 하나의 악센트만 포함하고 있으면 머리억양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머리억양도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억양단위이기 때문에 말마디가 악센트 음절로 시작되면 앞머리억양은 나타나지 않는다.

영어에는 (1)과 (2)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핵억양 -- 높내림조 (High Fall), 낮내림조 (Low Fall), 높오름조 (High Rise), 낮오름조 (Low Rise), 오르내림조 (Rise-Fall), 내리오름조 (Fall-Rise), 가운데수평조 (Mid Level) -- 이 존재하고, (3)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머리억양 -- 높은조 (High), 낮은조 (Low), 내림조 (Falling), 오름조 (Rising), 계단조 (Stepping), 연속내림조 (Gliding), 연속오름조 (Climbing) -- 이 존재하며, (4)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앞머리억양 -- 높은조 (High), 낮은조 (Low) -- 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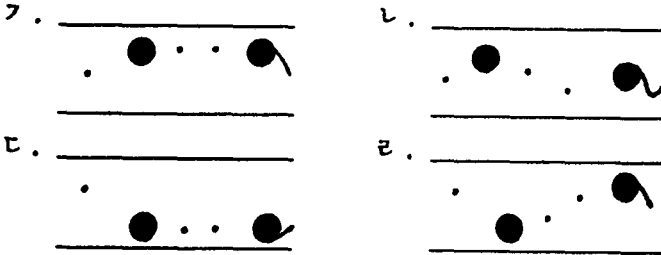
(3) He's the stupidest man I know.



높은조 머리억양은 가장 자주 쓰이는 머리억양으로 '생기있는' 태도를 전달하고, 오름조 머리억양은 '놀란', 혹은 '항의하는' 태도를 전달하며, 낮은조 머리억양은 '화난, 불만스런' 감정을 전달한다. 내림조 머리억양은 내리오름조 핵억양과 주로 결합되는데, 높은조 머리억양과 비슷한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계단조, 연속오름조, 연속내림조 머리억양은 높은조, 오름조, 내림조 머리억양보다 강조된 감정 및 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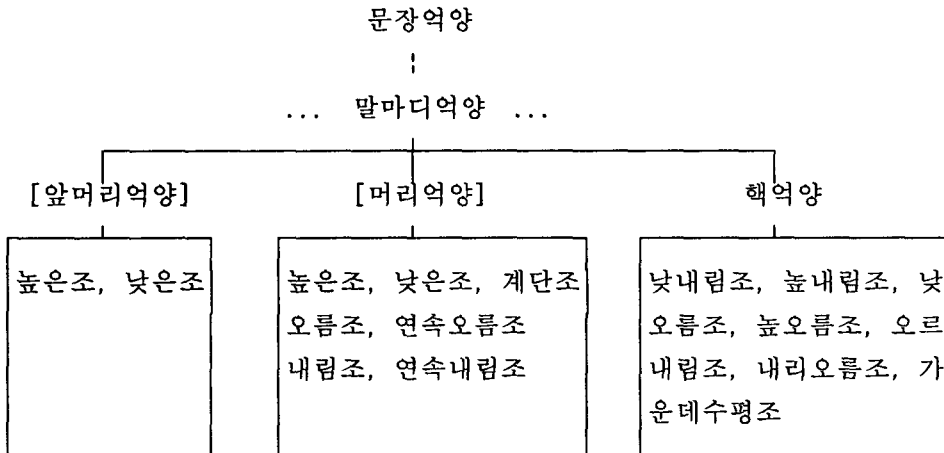
전달한다.

(4) I didn't say that.



위의 예에서 보듯이 낮은조 앞머리억양은 높은조, 계단조, 내림조, 연속내림조 머리억양과 주로 결합되고, 높은조 앞머리억양은 낮은조, 오름조, 연속오름조 머리억양과 주로 결합된다. 높은조 앞머리억양은 '놀란', '화난' 감정을 자주 전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영어의 억양체계를 그림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영어의 억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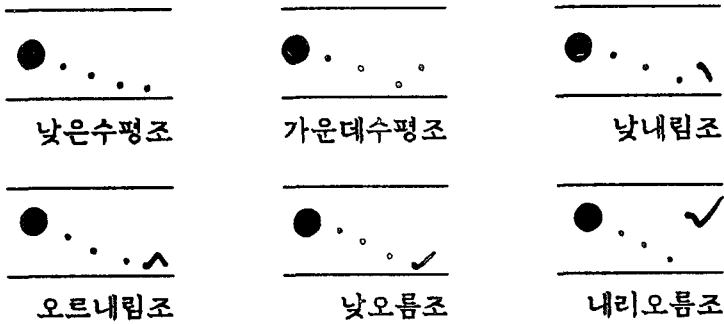
* '...': 없거나 하나 이상, '[': 수의적 요소

3. 한국어의 억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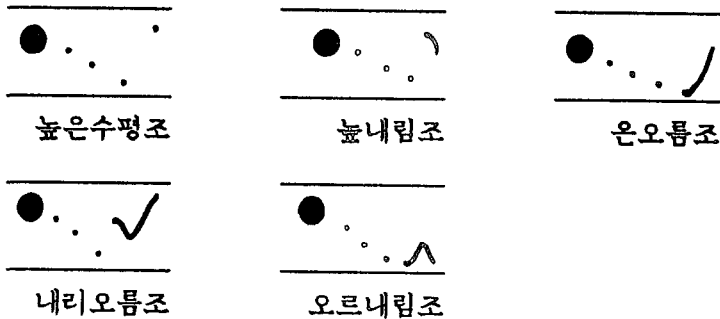
한국어의 문장억양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말마디억양으로 이루어진다. 국어에서도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억양의미의 대부분이 말마디억양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억양형태에 의해 전달된다.

(6) 학교에 갔어.

ㄱ. 평서문으로



ㄴ. 의문문으로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문장도 엇히는 억양형태에 따라 평서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문이 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억양의미를 전달한다.

(6ㄱ)에서 낮은수평조는 '단정적인, 냉정한' 태도를 전달하고, 가운데수평조는 '겸손한', 혹은 '통명스러운' 태도를, 낮내림조는 '부드럽고 친근한' 태도를, 그리고 오르내림조는 '귀찮은' 태도를 전달한다. 낮오름조와 내리오름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확인시킬 때 사용되는데, 내리오름조는 낮오름조보다 더 강조된 것

으로 들린다.

(6ㄴ)에서 높은수평조와 높내림조는 '관심, 흥미'나 '놀람'을 전달하는데, 높내림조가 더 큰 '관심, 흥미'나 '놀람'을 전달한다. 온오름조는 '놀라운', 혹은 '의심스런' 감정을 전달하고 내리오름조는 '화난' 태도를 전달한다. 그리고 오르내림조는 '경멸하는, 놀리는' 태도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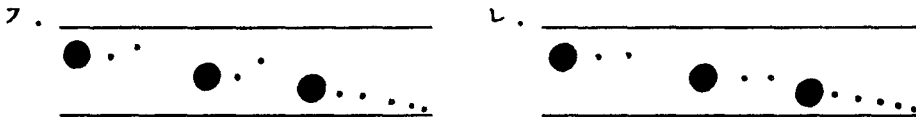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오르내림조와 내리오름조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쓰였는데, 오르내림조는 평서문에서보다 의문문에서 더 높은 높이 (pitch)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며, 오르내림조는 더 높은 높이로 끝난다.

한국어에서 말마디의 끝음절에 얹히는 억양형태를 필자는 **말마디 끝억양 (boundary tone)**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영어의 핵억양이 말마디에서 정보초점 (focus)을 받는 낱말에 얹히는 반면에 한국어의 말마디 끝억양은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 주로 정보초점을 받지 않는 어미에 얹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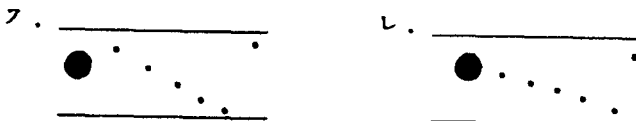
한국어에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말마디 끝억양 -- 높은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낮은수평조, 높내림조, 낮내림조, 낮오름조, 온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 -- 이 있다.

필자는 또한 말마디 끝억양에 앞서는 억양을 말토막 (rhythm unit)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고 말토막에 얹히는 억양형태를 **말토막억양 (phrasal tone)**이라 부른다. 억양을 말토막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이유는 한국어에서 하나의 말마디가 둘 이상의 말토막으로 발화될 때 말토막 단위로 계단내림 (declination) 현상이 일어나고 마지막 말토막을 제외한 말토막들에 동일한 말토막억양이 얹히는 음조조화 (tone concord)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아래의 (7)과 (8)에서 보듯이 한국어에는 네 개의 말토막억양 -- 오름조, 수평조, 내림조, 오르내림조 -- 이 있다.

(7) 화가가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



(8) 학교에 갔다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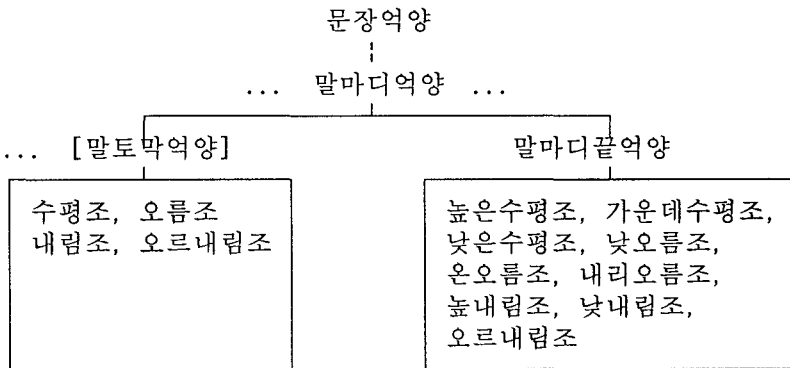
위에서 (7ㄱ)은 두 개의 오름조 말토막억양과 하나의 내림조 말토막억양을 가지고 있고, (7ㄴ)은 두 개의 수평조 말토막억양과 하나의 내림조 말토막억양을 가지고 있다. (7ㄱ)과 (7ㄴ)에서 모두 계단내림과 음조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8ㄱ)은 하나의 오르내림조 말토막억양을 가지고 있고, (8ㄴ)은 하나의 내림조 말토막억양을 가지고 있다.

오름조는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수평조 말토막억양은 마지막 말토막에도 부과될 수 있다. 오르내림조는 둘 이상 연이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이나 끝에서 두번째 말토막에만 얹힌다. 내림조도 말마디의 말지막 말토막이나 끝에서 두번째 말토막에 주로 얹히며, 드물게 두 개의 내림조가 연이어 나오기도 한다.

오름조 말토막억양은 친근한 대화체에서 자주 사용되고, 오르내림조 말토막억양은 공식적인 말씨에서 강조할 때 사용되며, 내림조 말토막억양은 말마디를 부드럽게 끝내려고 할 때 말마디 끝에서 자주 사용된다. 수평조 말토막억양은 오름조보다 덜 친근하게 들린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어의 억양체계를 그림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한국어의 억양체계:



* '...': 없거나 하나 이상, '[']': 수의적 요소

4. 한국어와 영어의 억양체계 비교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말마디 끝억양과 영어의 핵억양을 비교하고, 한국어의 말모락억양과 영어의 머리억양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4.1. 한국어의 말마디 끝억양과 영어의 핵억양

한국어의 말마디 끝억양과 영어의 핵억양 사이에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말마디 끝억양은 한 음절 -- 말마디의 끝음절 -- 에만 부과되는데 반해 핵억양은 둘 이상의 음절 -- 마지막 악센트 음절에서 말마디의 끝음절 -- 에 부과될 수 있다.

둘째로, 말마디 끝억양은 비악센트 음절에 없이기 때문에 청자로 하여금 정보초점을 받은 중요한 낱말에 주의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강조의 기능 (accentual function) 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반해 핵억양은 말마디에서 정보초점을 받은 낱말의 악센트 음절에 없이기 때문에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어에는 9개의 말마디 끝억양이 있고 영어에는 7개의 핵억양이 있다. 한국어의 말마디 끝억양과 이에 대응하는 영어의 핵억양의 기능과 의미의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의 높은수평조와 온오름조는 영어의 높오름조에 대응한다. 이 세 음조는 예-아니오 의문문과 되물음 의문문에 주로 사용된다.

2) 한국어의 가운데수평조는 영어의 가운데수평조와 대응한다. 한국어의 가운데수평조는 평서문에 주로 사용되며 '겸손한', 혹은 '통명스런' 태도를 전달한다. 영어의 가운데수평조는 문장의 끝에는 사용되지 않고 문장의 가운데에서 이어 나오는 말마디억양과 부드럽게 이어주는 구실만 한다.

3) 한국어의 낮오름조는 영어의 낮오름조에 대응한다. 한국어의 낮오름조가 예-아니오 의문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반해 영어의 낮오름조는 정중한 예-아니오 의문문에 자주 사용된다. 한국어의 낮오름조는 평서문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확인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고, 의문문에서는 걱정스럽게 자문자답할 때 사용되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상대방에게 부탁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영어의 낮오름조는 평서문에서 상대방을 달래거나 진정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고 명령문에서는 권유를 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4) 한국어의 높내림조와 영어의 높내림조는 형태적으로 대응하나 기능적으로는 대조적이다. 한국어의 높내림조는 주로 예-아니오 의문문과 되물음 의문문에 사용되는데 반해 영어의 높내림조는 주로 평서문에서 사용된다.

5) 한국어의 낮은수평조와 낮내림조는 영어의 낮내림조에 대응한다. 이 세 음조는 예-아니오 의문문을 제외한 다른 문장형태에 사용되는데, 한국어의 낮은수평조와 영어의 낮내림조는 '단정적인, 냉정한' 태도를 전달하고 한국어의 낮내림조는 '친절한, 다정한' 태도를 전달한다.

6) 한국어의 내리오름조는 영어의 내리오름조에 대응한다. 한국어의 내리오름조는 되물음 의문문에서 '화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격정스런 자문자답을 할 때 사용된다. 영어의 내리오름조는 평서문과 주로 결합되며 문장의 내용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전달한다.

7) 한국어의 오르내림조는 영어의 오르내림조와 대응한다. 한국어의 오르내림조는 평서문과 명령문에서는 '귀찮은' 태도를 전달하고, 되물음 의문문에서는 '경멸하는, 놀리는' 태도를 전달한다. 영어의 오르내림조는 평서문과 주로 결합되며 '감명받은' 감정을 전달한다.

4.2. 한국어의 말토막억양과 영어의 머리억양

한국어의 말토막억양과 영어의 머리억양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말토막억양이 하나의 말토막에만 부과되는데 반해 머리억양은 둘 이상의 말토막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억양흐름의 변화를 초래하는 악센트 단위 (accent unit)와 리듬의 단위인 말토막 (rhythm unit)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악센트 단위와 말토막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

한국어에는 4개의 말토막억양이 있고 영어에는 7개의 머리억양이 있는데 한국어의 말토막억양과 이에 대응하는 영어의 머리억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의 오름조 말토막억양은 영어의 오름조 머리억양에 대응한다. 한국어의 오름조는 친근하고 다정한 대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영어의 오름조는 주로 높내림조 핵억양과 결합되며 '놀란, 항의'을 전달한다. 영어의 오름조는 한국어의 오름조보다 높이 (pitch)의 변화의 폭이 훨씬 크다.

2) 한국어의 수평조 말토막억양은 영어의 높은조와 낮은조 머리억양에 대응한다. 한국어의 수평조는 보통 영어의 높은조와 같이 높은 높이로 발음되나 심각한 태도를 전달할 때는 영어의 낮은조와 같이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영어의 높은조는 친근한 대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낮은조는 주로 낮오름조 핵억양과 결합되는데 심각한

태도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둘 이상의 말토막이 같은 높이의 높은조 말토막억양으로 발음되는 일은 없으나 영어의 높은조 머리억양은 종종 둘 이상의 말토막에 부과된다.

3) 영어의 계단조 머리억양은 높은조의 강조형인데 반해 이에 형태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의 억양형태 ((7) 참조)는 강조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형태이다.

4) 한국어의 내림조 말토막억양은 영어의 내림조 머리억양에 대응하는데, 한국어의 내림조는 모든 말마디 끝억양과 결합되나 영어의 내림조는 내리오름조 핵억양과 주로 결합된다. 영어의 내림조는 한국어의 내림조보다 높이의 변동폭이 훨씬 크다.

5) 한국어의 오르내림조 말토막억양에 대응하는 오르내림조 머리억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오르내림조는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말씨에서 주로 사용된다.

6) 한국어에서는 두 개의 내림조 말토막억양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억양형태는 영어의 연속내림조 머리억양과 유사하다.

7) 한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오름조 말토막억양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억양형태는 영어의 연속오름조 머리억양과 유사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억양체계를 논의하고 한국어와 영어 억양의 체계, 의미, 사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대해 논의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둘 이상의 언어의 억양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여러 언어의 억양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고 다른 언어의 억양 연구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논문이 한국인에 대한 영어 억양의 교육,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의 억양 교육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호영 (1991), '한국어의 억양체계', 언어학 제 13호, 한국언어학회.
- O'Connor, J.D. and Arnold, G.F. (1973), *Intonation of Colloquial English*.
2nd edn. London: Longman.
- Cruttenden, A. (1986), *Into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per-Kuhlen, E. (1986), *An Introduction to English Prosody*. London: Edward
Arnold.
- Lee, H.Y. (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Seoul: Hanshin.
- Jones (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n, Cambridge: Heffer.
- Armstrong, L.E. and Ward, I.C. (1931), *Handbook of English Intonation*, 2nd
edn, Cambridge: Heffer.
- Palmer, H.E. (1922), *English Intonation, with systematic excercises*,
Cambridge: Heffer.
- Kingdon, R. (1958), *The Ground Work of English Intonation*, London: Longman.
- Schubiger, M. (1965), *English Intonation: its form and function*, Tübingen:
Niemeyer.